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권병학(요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사순 시기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유혹을 받으셨다. (루카 4:1,2)

미사 시간	
미사	주일 11:00(본당) 주일 17:30(공소)
평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목) 19:00
성모 신심	
성시간	매월 첫 (토) 11:00 매월 첫 (목) 19:3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년에 1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훈인성사	6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주일 10:00, 대침실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주 미사 후
샛별 Pr.	매주 주일 9:30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도들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사랑하울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느 성모 기도회	매월 1,3주 (토) 10:00
울뜨레야	매월 1주(목) 성시간 후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10/25 기준) 적립금액(\$76,263)
※ 주소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총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 ▶ 3/ 9(일) 사순 제 1 주일 미사 (본당 11:00, 공소 17:30)
- ▶ 3/ 11(화) 사순 제 1 주간 화요일 (본당 20:00)
- ▶ 3/ 16(일) 사순 제 2 주일 미사 (본당 11:00, 공소 17:30)

◎사순 시기 목상집 배포

구역장으로부터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안내(매주 금요일 19:30)

- | | | |
|---------------|------------------------|-----------------|
| •3/14 해설, 독서단 | •3/21 울뜨레야 | •3/28 꾸리아/바뇌기도회 |
| •4/ 4 성모회/성가대 | •4/11 주일학교 자모회/복사단/자모회 | |
| •4/18 구역장 | | |

※ 각 단체별 봉사자 4명은 계시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단식재는 만 18세부터 만 60세

◎우리들의 이야기 (3월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약 3분 정도 핸드폰으로 찍으실때는 반드시 가로로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제단체 및 구역 소개와 장점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총무 김성수 베드로 형제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과 신심단체, **성모회, 성가대**, 성물방, 전례부, 주일학교, 복사단, 전례 해설단, 사목회 등). 완성된 파일은 전례분과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교리서 해설 온라인 교육

- 수강 신청: 이해영 루시아
- 수강료: \$40
- 강의 시간: 3/13 ~5/29 매주 수요일 (20:00 ~ 21:45)

※ 자세한 사항은 계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대모/대자녀를 위한 기도 알람

사순시기부터 밤 9시에 모두 각자 대부모/대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주모경)

◎교구청 특별 헌금 다음 주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

◎복사단, 복사단 자모회 회합 3/16(일) 미사 후

◎2024 시니어 소득 신고 도와드립니다.

준비된 서류는 재정분과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소식

◎꾸리아

오늘 주 미사 후 꾸리아 회합이 있습니다.

공소 소식

◎십자가의 길

3/9(일)부터 시작합니다.

◎3 월 공소 축일자 3/30 김재근 조시모

구역모임 (소식)

3 월 목상복음 루가 9,28-36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

- 1 구역: 3/15(토) 11:00 친교실
- 2 구역: 3/23(일) 14:00 친교실
- 3 구역: 3/29(토) 12:00 친교실
- 4 구역: 3/22(토) 18:00 황창환 알비노
- 5 구역: 3/15(토) 17:00 하태성 베드로
- 6 구역: 3/15(토) 18:00 이승익 다니엘
- 7 구역: 3/22(토) 17:30 이상은 엘리사벳

친교 식사

3/ 9: 7 구역(미역국, \$5/\$3)

3/16: 1 구역 3/23: 2 구역 3/30: 3 구역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33 명)			
주일헌금	\$1410	교무금	\$1795
감사헌금	\$	성전건립	\$10

감사합니다.

※ 도네이션 - 성가대 오르간 (St. Andrew Kim, Buffalo)

◎3 월 축일자 명단 (11 명)

- 3/ 1 알비노(황창환)
- 3/ 7 태오플로(이정길)
- 3/12 세라피나(임선녀)
- 3/19 요셉(정시안, 조용구, 조운형, 이인규, 임종선)
- 3/22 레아(홍준희)
- 3/25 그라시아(김경희)
- 3/31 벤자민(이강현)

성 요셉 성월 기도

-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요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 하느님께 빌어 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 주소서.
- 아멘.

사순시기

‘사순 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주님 만찬 성 목요일’의 주님 만찬 미사 전까지이다. 이 사순 시기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목상하며 예수님의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는 때이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 사십 일 동안 재를 지켰고(탈출 34,28 참조), 엘리야는 호렙산에 갈 때 사십 일을 걸었다(1 열왕 19,8 참조).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사십 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시며 유혹을 받으셨다(마태 4,1-2 참조). 이처럼 ‘사십’이라는 숫자는 하느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정화의 기간을 뜻한다. 그래서 이 기간에 희생과 극기의 표징으로 금육과 단식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한다. 교회는 금요일마다 금육재를 지키고, 재의 수요일과 주님 수난 성 목요일에는 단식재와 금육재를 함께 지키고 있다.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단식재는 만 18세부터 만 60세의 전날까지 지켜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 136 조 참조). 이러한 희생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 대한 나눔으로 드러나야 하므로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나눔으로 완성되게 해야 한다. 이 기간의 미사 때나 말씀 전례에서는 ‘대영광송’과 ‘알렐루야’는 바치지 않는다. 그리고 제의 색깔은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보라색이다.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3/9	박규혜 카타리나	최아현 베로니카, 이준규 안드레아	1 독서: 김성수 베드로 2 독서: 이재순 데레사	권희진 요안나 임연신 비아
3/16	권희진 요안나	이준서 사도요한, 최다혜 플로라	1 독서: 김한욱 예릭 2 독서: 채정희 올리비아	김성수 베드로 김지현 아네스
3/23	김성수 베드로	최다희 보나, 이준우 바오로	1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2 독서: 박혜영 수산나	김한욱 예릭 채정희 올리비아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장민호 미카엘
신선성당 주임

지난 재의 수요일, 머리에 재를 엿으면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사순절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 인간의 처지를 생각하고 지나온 나날들을 반성하며 속죄하는 시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매번 사순 제1주일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악마로부터 유혹을 받았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둘을 뺏으므로 만들라는 먹고사는 문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악마를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권력에 대한 유혹,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헛된 자만과 명예에 대한 유혹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더 높은 자리는 나의 이름을 더욱더 빛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돈, 권력, 명예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돈, 권력, 명예가 없다면 인간취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고자 애쓰고, 더 많은 권력을 쥐려고 노력하며, 이름을 남기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 권력, 명예에 대한 유혹을 왜 예수님은 물리쳤을까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을 해보시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하느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악마가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명예를 위해 하느님 아들의 지위와 권위를 남용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과는 무관한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하느님 아들이라는 지위, 또는 하느님을 이용하라는 악마의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로써 말입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루카 4,8)

우리는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예수님처럼 악마의 유혹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과 권력, 명예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때론 눈 한번 지그시 감으면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히브 2,18)장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St. Peter Yu Catholic Church /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사순 제 1 주일

(2025. 3. 9.)

제 1 독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26,4-10

화답송 시편 91(90), 1-2. 10-11. 12-13. 14-15(◎ 15 ← 참조)



후렴.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는 이,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무는 이,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나 그분께 의지하네.” ◎

○ 너에게는 불행이 다가오지 않고, 네 천막에는 재앙이 얼씬도 못하리라. 그분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 주시리라. ◎

○ 행여 네 밭이 돌부리에 차일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너는 독사와 살모사 위를 거닐고, 힘센 사자와 이무기를 짓밟으리라.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0,8-13

복음 환호송 마태 4,4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1-13